

공감하고 협동하며 함께 느끼는 시간

인천신선초 특수학급, 통합체육수업 교실운영

인천신선초등학교(교장 김승우)에서는 9월 28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10회기에 걸쳐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 공감하고 협동하며 함께 느끼는 통합체육수업을 운영한다.

우선 3~6학년 9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10명의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함께 어울리는 보컬", "음률으로 즐기는 재미있는 볼링", "모두 함께 즐겨요, 피구와 티볼"이라는 크게 네 종류의 운동경기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뉴스포스트를 설계했다.

이번 첫 수업에 참여한 5학년 이도 학생은

"나와 조금은 다른 동생, 그리고 형, 누나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며 수업을 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의 반에 있는 개별학습반 친구에 대해서도 이해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수업에서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라며 수업 소감을 발표했다.

그리고 6학년 백도 학생은 "첫 수업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며 수업을 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의 반에 있는 개별학습반 친구에 대해서도 이해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수업에서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라며 수업 소감을 발표했다.

통합체육수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사명의 하나로서 인천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실행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수



업을 통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더 나아가 인친시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통합체육수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인천뉴스 기자 as@**

꿈 속속 키 특특 꿈을 키우는 우리들

인천만월초, 2016 만월 학예발표회

인천만월초등학교(교장 이종환)에서는 10월 7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과 표현력을 기르고자 '2016 만월 학예발표회'를 개최했다.

학급별 학예발표회 형태로 열린 이날 학예회는 1~2학년은 2, 3교시에 3~6학년은 4, 5교시로 나눠 열렸다. 만월 학예발표회는 모든 학생에게 발표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학교생활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개해 짙은 체험을 공유하고, 학부모와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또한, 인천학생교육문화회와 찾아가는 갤러리(레오나르도 다빈치와르네상스 100) 작품 전시가 함께 열려 문화 예술적 감상까지 아우르는 축제적 장이었다.

학예회를 관람하신 한 학부모는 "발표회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또 이리 이해 못도 마음도 성장하는 만월 학생이 된 것 같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꿈 속속 키 특특 만월 학예발표회"는 "꿈 속속 키 특특 만월 학예발표회"가 "좋은 학생, 좋은 사람 키르는 만월교육"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뉴스 기자 as@**



부모님 일터에 다녀왔어요!

간재중, 직업체험학습 실시

간재중학교(교장 조경남) 1학년 385명의 학생은 10월 5일 119 소방안전센터, 방송국, 초등학교, 어린이집, 롯데백화점, 공회관, 거리순회 등 7개 장소로 직업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지난겨울 2학년에서 이뤄졌던 학부모 일터 직업체험 학습을 올해는 자유학기를 보내

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체험하게 됐다.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 일터에서 평소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노고와 사리에 대해 느껴보는 계기가 됐으며 다양한 직업 관련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의 꿈을 다져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간기배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부모님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으며,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인천뉴스 기자 as@**



구도심 학교 발전방안 고민하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부평여중 방문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월 5일 부평여자중학교(교장 우내문)를 방문하여 구도심 학교 발전 방안 등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신은호 위원장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학생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교장으로선 학교 현황 보고 및 학생 수와 학급수의 급격한 감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학생 안전문제 및 구도심 학교의 현안에 대해 세심한 의견을 내었다.

신은호 위원장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과 최근 부족 증가하고 있는 지진의 발생 등으로 인한 학생안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시의회 예산편성 시 구도심의 오래된 학교의 시설 개보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출신을 저하와 신도시로

의 인구유동이 많아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 학교의 학생 수와 학급수의 감소에 따른 많은 문제점 중에서 학교 재정의 부족과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으로 학생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저소득층과 한 부모, 다문화 가정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기회 균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육 자주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정확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회의에서 여지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인천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뉴스 기자 as@**

"초승달 표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2016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소속 동부과학유관관(관장 성상호)은 10월 5일 2016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3학년 학생과 학부모 100여명과 함께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찾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활동은 인천학생과학관 견학을 시작으로 별자리에 대한 특강과 천체투영실 플라네타리움을 활용한 여름철, 가을철 별자리 탐구와 우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저녁 시간에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천체관측 돛과 옥상에 설치된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작해 보고 망원경을 통해 달과 목성, 금성 등 천체를 관측하고 여름철의 별

자리와 우주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

이날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천체관측 체험학습을 통해 "평소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밤하늘의 초승달과 별들을 직접 조작한 망원경으로 보면서 세상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고, 천체관측 등에서 조금 쌀쌀한 저녁 날씨 탓에 학부모와 아이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고 앉아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주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풀어가느라 시간이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학교폭력에방·정서순화 도모

인천청진중, 찾아가는 연주회 개최

2016학년도 인천청진중학교(교장 한상욱)는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배고 건강한 문화공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10월 6일 찾아가는 연주회를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연주회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청진중학교로 직접 찾와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8곡의 연주를 실시했다. 60여명의 연주자와 3명의 협연자까지 출연하여 대단원의 연주를 선보였으며,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관현악기, 타악기 등이 총출연하여 학생들의 흥미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연이 되었다.

특히, 이경구(인천시립교향악단 소속) 지휘자는 각 연주마다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형식으로 학생들이 알기 쉽게 풀어써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하는 그야말로 대박도 높였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6월 1일에 창단되어 지금은 해외유명인사까지 영입하면서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하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었다.

인천청진중학교 한상욱 교장은 "이번 연주회는 어느날 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기자 as@**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3가지 맛으로 골라드세요!!!

1. 화끈하게 매운맛
2. 감칠맛나게 겨운맛
3. 순하게 안매운맛

산낙지연모탕,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판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전도 준비되었습니다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속리당) 축현초교 청문암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체석 및 대형주차장반비

복합재 지원금 1,000원만

낙지요리전문점
행복한 낙지

산낙지연모탕, 산낙지찜, 산낙지전골, 산낙지찜판

모든 메뉴 포장

막걸리에 파전도 준비되었습니다

본점: 인천시 연수구 정방로 171, 1층 (속리당) 축현초교 청문암 예약문의 (032)834-7740 단체석 및 대형주차장반비

청소년의 역사의식 바로세우기

화도진도서관,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관장 윤영호)에서는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을 10월부터 11월까지 7회 운영한다.

향토역사교육 관련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우리고장 역사 포토콜로 만들기'와 인천의 개항장과 근대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며 역사 문화를 비교, 체험 할 수 있는 '개항장, 두 도시 이야기'가 운영된다.

"우리고장 역사 포토콜로 만들기"는 먼저 화도진중학교 1학년 30여명을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3회 운영되며, 동구의 옛 이야기부터 화도진의 역사적 의미와 동구의 대표적인 건축물과 문화재, 산업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직접 동네 현장 탐방과 역사지도 만들기 등 '우리 고장 역사 포토콜로 만들기'로 마무리된다.

이 프로그램은 화도진중학교에 이어 11월에는 광성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항장, 두 도시 이야기'는 근대사의 근대역사박물관과 개항장정비를 인천시립 박물관 배설수 화예관과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2일, 광성중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두 도시의 달은 모습과 다른 점, 근대도시의 풍경을 박물관과 근대역사지구 탐방을 통해 알아본다.

화도진도서관의 역사관련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향토역사 교육을 통한 한류 역사의식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환심 고취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화도진도서관은 활동-개항문화 자료관에서 다양한 인천의 향토자료들을 소장 하고 있으며 상설전시관인 개항자료전시관 운영과 인천화 시민강좌 등을 통해 인천 역사 알리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운영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일반가정 학부모 17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동아리 "다름"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동아리 "다름"은 다문화 사는 우리, 다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뜻을 가지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기계발 및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했다. 2016년 8월부터 운영된 동아리는 매월 2회의 모임을 가지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 4일,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에서 진행된 '다름'을 주제로 다문화 학부모가 배우고 싶다고 요청한 요리와 일반 학부모들이 요청한 요리를 각각의 학부모단에서 요리 시연을 하며 가르쳐 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다.